

친애하는 전국의 양돈인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전국각지의 양돈대표인과 기업양돈가 여러분!

우리나라 축산업은 불과 15년전만 하더라도 부업규모의 형태로서 자급자족을 할수있는 영세한 생산단계였으나 70년대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소득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부터 축산물의 수요가 급신장됨에 따라 그생산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소위 성장기를 맞이하는 산업으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물의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사료의 도입 수급및 가격의 안정을 위한 육류의 수입이 점차 늘어나 이를 위한 외화의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양축농가와 소비자는 축산물의 질과 가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축산정책은 수급의 조절과 가격의 안정으로 양축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모든산업이 그렇듯 성장기의 양돈산업은 생산성제고 문제를 비롯하여 품질,유통,가격, 소비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70년대의 각광받던 돈육수출사업은 7천만달러에 상당하는 돈육을 수출하여 수출산업으로서 가능성을 보임으로서 기업 규모의 양돈장을 출현케 하여 사양기술의 향상과 품종의 개량, 육질의 개선,생산성의 제고 등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79년도의 극심한 불황이후 돈육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가운데 주기적인 불황의 싸이클을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으로서 전망을 예측하는 관측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생산조절을 통한 안전선을 어느 정도 유지해 왔으나 최근에는 이에 대한 불신 경향이 높아 가고 있으며 축산당국이나 업계의 수 없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육두수는 마침내 적정규모를 훨씬 초과하여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심한 불황의 국면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고 말았으며 이는 장기간 지속될 전망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전국의 양돈인 여러분!

돈육의 수요와 생산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은 여러 형태가 있겠으나 능력에 따라서는 어미돼지 한마리가 연간 800kg 이상의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특성으로 보아 생산조절이 없는 수급의 안정이란 그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운 것 입니다. 수매비축을 통한 공급조절기능을 강화하고 소비를 확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생산구조하에서는 거의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적이론으로 성립되어 있습니다.

돼지생산조절(모돈

양돈경영 안정은 적정

전양돈인이 자율적으로
수준높은 주체의식과 의지,

감축)결의대회대회사

생산규모의 유지가 되어야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협력만이 경영안정의 열쇠

그간 본회에서는 양돈불황의 심각성을 예견하고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 정부당국에 건의한 바 육류소비구조개선을 통한 돈육의 소비확대를 위하여 돈육소비홍보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수매비축, 돈육수출사업의 재개 등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돈사업의 안정이 어느 특정관련기관이나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그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은 오직 전 양돈인이 자율적으로 산업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수준높은 주체의식과 의지 그리고 서로간의 협력만이 우리가 염원하는 양돈산업경영안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열쇠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양돈사업의 경영안정은 양돈농가의 소득증가와 더불어 소비자인 국민의 가계생활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물가안정의 정책에도 기여하는 비중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것은 국내 육류 소비량의 50% 이상을 우리가 생산하는 돈육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전국의 양돈인 여러분!

오직 우리 양돈인이 공존공영하고 양돈산업의 경영안정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은 돈육의 수급과 균형을 이루는 적정생산규모의 유지 뿐입니다. 이 적정 사육규모 유지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국가적 소명이 자율적인 생산조절인데 이와같은 과업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계층간의 미묘한 감정이나 먼저 줄이는 자만이 피해를 입는다는 감정을 버리고 전 양돈인이 자율적으로 생산을 조절해 나가야 겠습니다.

친애하는 기업양돈인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그간 우리 기업 양돈인들이 양돈산업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므로 생산조절 또한 그러한 입장에서 실천함으로써 계층간의 위화감과 마찰을 해소시키며 전 양돈인의 화합된 힘과 슬기를 모아 양돈불황을 타개하여 양돈경영안정의 정책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명감과 긍지속에 굳은 의지를 밝히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와같은 의지와 열망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내일의 선진양돈을 향해 굳게 그리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1984년 1월 25일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양돈경영안정추진위원회

위원장 전 동 용